

광주 북구 임동 부동산 시장 훈풍 부나

개발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광주 북구 임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부는 분위기다.

임동 주택재개발 사업에 이어 일신·전남 방직 이전 부지를 가진 '근대 산업박물관'으로 조성하자는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가 하면,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등경기장 주변 주차장 부지 해제가 검토되는 등 일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할 사항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주차장 3개 안 짓기로... 다른 용도로 개발되나=14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수년간 공영주차장 용도로 묶여있던 부지를 해제하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5400만원을 들여 추진기로 하고 용역 계약을 의뢰하는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무등경기장을 리모델링,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인근 4곳에 주차장을 더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재산권 침해로 주장하는 주민들 반발 등을 고려해 3곳의 공영주차장을 짓지 않기로 하는 용역을 추진기로 했다. 대신, 무등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임동 576번지 일대 7627㎡ 부지에 지상 2층(30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그대로 진행기로 했다.

광주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는 ▲북구 임동 100-38번지 일대 8660㎡ ▲북구 임동 20번지 일대 7950㎡ ▲북구 운암동 424-25번지 일대 5409㎡

일신·전남방직 이전 부지 '산업박물관' 개발 기대감 무등경기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해제 등 호재 잇따라



광주시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일대. 챔피언스필드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묶여있던 부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해지고 일신·전남방직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시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의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등 136필지(소유자 104명)에 이른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공영주차장 대신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근 재건축 수요 등과 맞물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질적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일신·전남방직, 근대산업박물관으로 바뀌나=최근 광주시가 내놓은 '광주진일

잔재 조사용역보고서'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임동 일신·전남방직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 일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일신·전남방직 부지를 근대산업박물관이나 한국 면직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신방직 쪽 폐공장을 개조해 목화·잠업부터 근대 면직산업, 면직업 이외 근대 산업시설 설

명까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만들면 경쟁력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방직 쪽 폐공장을 콘텐츠 창작시설, 광주전과 발산을 조망하는 뉴트로 플레이스 등으로 개조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기존 유명무실했던 챔피언스필드-서림초교 간 야구의 거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발산 문화창조마을과 임동 간 뽕뽕다리를 재건하면 낙후지역인 임동과 양동 발산마을 모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공장 부지 외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광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광주시도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해온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개발 전망이 밝다는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여기에 전남방직 건너편 임동 94-8번지 일대 3만6458㎡에 추진되는 임동 2구역 재개발사업도 일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홍보회 부장은 "임동 일대는 최근 임동 2구역 재개발과 일신·전남방직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매입한 뒤 상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 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4.52 (-11.05)	↓ 금리(국고채 3년)	1.80 (-0.01)
↓ 코스닥	683.09 (-3.24)	↑ 환율(USD)	1123.00 (+6.60)

2019 새해에 듣는다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新성장동력 발굴 과감한 투자 이끌겠다”

4차 산업혁명 대비 IoT·블록체인 등 선도기술 교육 멘토링 서비스·금융기관 연계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광주지역 경제는 새해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 세계 경기의 둔화 조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수출 전선도 밝지만은 않다.

“광주형 일자리”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둘러싼 먹구름이 언제 걷힐 지 짐짓기 어렵다. 지역 대표 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 정창선 회장의 고민도 깊을 수 밖에 없다.

정 회장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가기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정 회장은 “기업인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는 데 나설 수 있도록 대표경제단체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역 기업들이 뒤지지 않도록 신산업 확장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제조업과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공유경제 등 선도 기술에 대한 교육기회와 경영정보 제공에도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지역 기업들을 위한 경제포럼, 세미나, 설명회 등을 열어 최신 경제동향을 제공하는 한편,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과 연계, 지역기업들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해외 수출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해외전시·박람회 참가를 활성화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기업들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채용 및 우수 인재 양



성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센터를 운영해 지역기업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또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취해 정부와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건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경기전망과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털어줄 수 있는 정책과제도 발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지역 기업들간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것도 기업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 회장은 “지역 경제인들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전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해 광주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봉선동 한국아텔리움 8억

전국 최고가는 서울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50억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남구 봉선동 한국아텔리움 1단지(전용면적 155.82㎡·1층)로, 8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14일 '2018년 국토교통부의 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봉선동 한국아텔리움 1단지의 전세가가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무안군 남악리 펠리시티 리버뷰 5차 아파트(전용면적 246.39㎡)로 거래가격은 5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아파트는 우수한 조망권을 갖

추고 있는 데다, 업무중심지로부터 근접성이 좋아 전세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봉선동의 경우 학교와 학원 등이 밀집, 교육 여건이 좋은 입지 여건에다, 한번 시세가 형성되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전국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71.38㎡로, 5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설 앞두고 과일값 들쭉... 정부, 성수품 공급량 확대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주요 성수품 물량을 1.4배 풀기로 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이 줄면서 평년보다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부사)는 10kg 기준으로 지난해 중순 2만8854원에서 지난해 하순 2만8444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달 상순 다시 올라 3만1907원으로 3만원 선을 돌파했다.

배(신고) 역시 15kg 기준 지난해 중순 4만3139원에서 지난해 하순 3만8830원으로 내렸다가 이달 상순 4만8605원으로 1만원 상당 오른 상황이다.

반면, 배추와 무는 월동배추·무 생산량이 늘어 평년보다 낮은 가격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축산물의 경우, 소·돼지고기와 계란 가격은 안정세지만 닭고기는 출하량 감

소로 소비자가격이 평년보다 3.1% 오른 5445원 수준이다.

임산물 분야에서 밤(중·만생종)은 생산량과 특·상품 증가, 대추는 폭염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가격이 강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1일 동안 평소의 1.4배 늘려 공급한다.

이들 품목 하루 공급량은 5412t에서 7376t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과일은 중·소과로 이뤄진 알뜰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40% 늘려 7만 세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10만원 이하 실속형으로 구성된 한우·한돈 선물세트를 모두 8000세트 품다. 또 직거래 장터, 농협·산림조합 직매장 등 장터 개설을 늘려 활인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노** NAVER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홍윤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워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